
내 인생의 스승님

유 병 하*

1. 한영희 선생과의 만남과 국립전주박물관 생활

국립중앙박물관은 1990년 1월부터 전주박물관의 건립과 개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건축공사는 대부분 끝났고 10월 26일 개관을 목표로 전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입관 3년차였다. 매일 수장고만 오가는 일상에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발굴현장의 탐방과 실제 발굴조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개관팀을 이끌고 계셨던 한영희 선생님을 찾아가 개인적인 희망과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으로의 전보를 부탁드렸다. 얘기를 다 들어주신 후 ‘알았다’고만 하셨다. 반신반의한 상태였는데 실제로 곧 발령이 났다. 이렇게 전주에서의 박물관 생활이 시작되었다.

고된 작업 끝에 무사히 개관을 마치고 1991년부터는 정상적인 박물관 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시 학예실의 고유 업무는 수장고 관리, 조사연구 실행,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오늘날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수장고 관리라고는 해도 열심히 발굴 유물을 등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조사연구는 미리 계획된 지표조사를 나가거나 새로운 매장문화재가 신고되었을 때 현장조사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교육 프로그램도 박물관 문화대학과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를 운영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학예실의 업무 범위는 넓었지만, 실제로는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사진 1. 1991년 3월 국립전주박물관 야외전시장 정읍 무성리 석불 이전

그 외에 매일 학예실 직원들이 모여서 소규모의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학예연구사 한 사람이 발표하고 한영희 관장님 이하 학예실 직원 10여 명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형태의 학술 모임이었다. 이것은 ‘공부하는 학예연구실’을 만들고자 하는 관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된 결과였다. 또한 주말에도 학예연구실과 관리과(현 기획운영과) 직원까지 발굴현장 중심의 답사에 동참하게 하셨다. 하늘과 같은 관장님이 몸소 앞장을 서시니 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사실 그 무렵에는 대부분의 발견매장문화재 신고가 박물관으로 들어와서 학예실의 경우 직접 팀을 꾸려 현장조사를 실행하기도 바빴다. 그리고 대부분의 답사지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를 부리고 싶을 때가 많았다.

이렇게 고고학적 업무와 관련 조사연구 활동이 박물관 내에서 지속되다보니 소위 문자향서권기(文字香書卷氣)가 흘러넘쳤고 주변의 관련 대학과 연구소를 압도하는 위상도 가질 수 있었다. 거기에 한영희 관장님의 학문적인 카리스마도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필자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토피아가 도래한 것이다.

2. 한영희 관장님의 해안과 부안 죽막동 유적의 발굴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한영희 관장님은 국립전주박물관 만의 독자적인 학술영역을 구축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 첫 사업이 바로 개관 이듬해인 1991년 겨울에 실시된 전북 서해안일대의 지표조사였다. 아마도 관장님은 새로운 패총의 발견을 염두에 두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언급하신 적은 없었고 그저 직원들끼리 모여서 짐작만 할 뿐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최몽룡 교수님이 젊은 시절 발견하셨던 격포 대항리 패총이 생각나서 부안 해안일대에 조사를 집중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규산 학예연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군산시부터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항리 패총도 확인하고 남쪽으로 더 내려오니 부안 적벽강과 채석강 일대에 이르게 되었다. 이곳은 산지가 바다를 침식하여 형성된 해안단에 지역으로 별다른 고고학적 유적의 발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미 날도 저물어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격포항에서 저녁을 먹고 찬 겨울바람에 시달린 몸을 눕히고 싶은 생각만 간절하였다. 그래서 해안 초계병들이 구축해 놓은 교통호를 따라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해신당(海神堂)인 수성당(水聖堂) 뒤편에서 많은 토기편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적이 입지가 매우 특이하게 느껴져서 시누대로 뒤덮힌 주변을 더 조사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토기편, 자기편, 기와편과 함께 유공원판(有孔圓板) 몇 점도 수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유물만 수습한 채 박물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유적의 성격을 확인하게 된 것은 그 이듬해의 일이다. 한영희 관장님께서 유공원판과 유적의 입지를 감안하여 제사유적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셨다. 남몰래 일본의 연구 사례도 참조하셨던 듯싶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 본격적으로 일본의 자료를 탐독하고 고민한 후에 그 결과를 앞서 언급한 박물관 내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를 하였다. 토론을 거쳐 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을 수 있었기에 일단 해양 제사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연스럽게 조사단은 지표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꾸려졌고, 나중에 일본의 제염토기(製鹽土器) 전공자인 도마(戶濶幹夫)씨가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石川縣立歴史博物館)과의 자매 박물관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듯이 부안 죽막동 유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데는 한영희 관장님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각종 고고학적 조사연구가 활성화되도록 학예연구실을 유도하였고, 유적의 발견 이후에도 그 성격을 밝힐 수 있는 결정된 조연을 아끼지 않았으며, 발굴조사도 전적으로 지원해 주셨다. 오늘날 부안 죽막동 유적을 필자와 관련하여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한영희 관장님을 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진 2. 1991년 6월 국립전주박물관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현장설명회

발굴조사가 끝난 후 예상대로 부안 죽막동 유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사유적으로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 언론의 조명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조사단은 모두 발굴성과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중에서 기자들에게 상기된 표정으로 열심히 현장 설명을 하시던 한영희 관장님의 모습이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

3. 관장님이 아니라 스승님이었던 한영희 선생님

관장으로서 한영희 선생님은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셨다. 학예실 직원들에게는 잔잔한 미소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묵묵히 지켜보는 역할을 하셨다. 반면에 관리과 직원들과는 야구경기, 답사, 회식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면 접촉을 하셨다. 그들에게도 ‘박물관의 주인’ 혹은 ‘공동 운영자’라는 의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다. 당시 청원경찰과 방호원, 미화원, 식당 아주머니, 용역업체 직원까지 일일이 챙기는 모습은 사실 충격으로 다가왔고, 오히려 학예실 직원들이 소외감이 들 정도였다. 이렇듯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분이였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조용히 불러서 달려갔다. 평소 말씀을 많이 하시던 분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작정을 하신 듯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먼저 자신의 박물관 운영 철학을 말씀하셨다. ‘학예직은 안으로 챙기고 현업직-관리과 소속의 모든 직원-은 바깥으로 챙긴다’고 하시면서, ‘박물관의 진정한 주인은 학예직이지만 현업직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또한 표현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실제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셨다. 아마도 학예직들의 소외감을 어디선가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의 말씀이 크게 다가와 이후 필자의 박물관 생활에서도 큰 지침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다른 하나는 공부와 관련된 말씀이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박물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박물관 직원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따라다니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하며, 열심히 공부해 만족감을 높이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할 뿐이다. 더 나아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학예직의 존재 이유이다. 따라서 지금 학예연구사 네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와 국립진주박물관에서의 사례를 들면서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이 있었다. 나를 노력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모양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따끔한 질책과 함께 따뜻한 격려도 받았기에 기쁨도 느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립진주박물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신석기 연구에 전념하실 수 없었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한다’는 말씀에서 진솔함이 느껴졌고 인간적 소통이 이루어진 것만 같아서 기쁨이 더했다. ‘말씀대로 하리라!’ 작정하고 물러나왔다.

그 이후 30여 년의 박물관 생활이 더 이어졌다. 그 세월 동안 한영희 관장님은 내게 인생의 사표였고 진정한 스승님이었다. 하지만 스승님으로 모셨으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박물관을 떠나는 날까지 후배들에게 똑같은 말만 되뇌었으니 못한 제자로만 살았을 뿐이다. 그래서 선생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흐른다.